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기술인회 뉴스레터

주요활동 | 언론·보도 | 인터뷰 | 기고문 | 이벤트 | 읽을거리 | 공지사항

새해에는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산림 관련 사진과 사연을 모집합니다!

상시접수

산림과 관련된 사진이나 사연을 보내주세요. 정회원 여러분의 간직한 이야기와 추억을 매달 발행되는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뉴스레터'에 실어드립니다.

참여대상

2024년 회비를 납부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모집내용

산림과 관련된 사연 및 사진

참여방법

이메일(shekdms@tkfea.or.kr)제출

※ 원고 분량 A4 1~3장 이내, 사진 해상도 최소 2500px

유의사항

이메일 발송 시 보내시는 분의 기본사항(이름,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며, 발송 일자와 원고 게시 시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여혜택

사진 및 사연이 채택된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CONTENTS

2023+Vol 10 December 2023

02 이번달 우리 회는?

12월 주요활동 및 소식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23년도 임시 이사회 열어
2024년도 정기 이사회 실시
창립 5주년 인포그래픽 발표(보도자료)



08 산림 이야기를 담다

전문가 기고 및 인터뷰

한국산림기술인회 마상규 자문단장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교육원장

22 산림 정보 쏙쏙!

읽을거리 및 정보 제공

겨울철 산행 안전수칙
산림관련 법령정보
신고센터 안내



28 심을 더하다 +

이벤트 및 공지사항

산림행정 순화용어 맞추기 이벤트
산림헤드라인뉴스 및 이벤트 당첨자
교육안내 및 신년인사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발행** 한국산림기술인회
기획·편집·디자인 한국산림기술인회 홍보팀
www.tkfea.or.kr (한국산림기술인회)
www.tkfeaedu.com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대표전화 1522-5936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1533-5160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1~3번 교육 문의 / 4번 회원 문의 / 5번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6층(둔산동, 사학연금회관)



◀ 뉴스레터 바로보기

회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shekdms@tkfea.or.kr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뉴스레터에 게재될 글,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12월 한국산림기술인회 주요활동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12월 7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분회장 및 시도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술인회 현안사항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3 임시이사회 열어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12월 15일 2023년도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술인회 현안사항에 따른 운영방향 및 대책 마련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 제4차 정기 이사회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12월 28일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에서 '2023년도 제4차 정기 이사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 이사회는 기술인회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서면결의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이날 보고안건 4개, 심의안건 4개, 토의안건 1개 등 총 5개 회의안건이 상정됐으며, 기술인회 이사 및 참석자들은 대면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12월 보도자료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2018년 12월 20일 창립 ... 5년간 주요 연혁 및 성과 담아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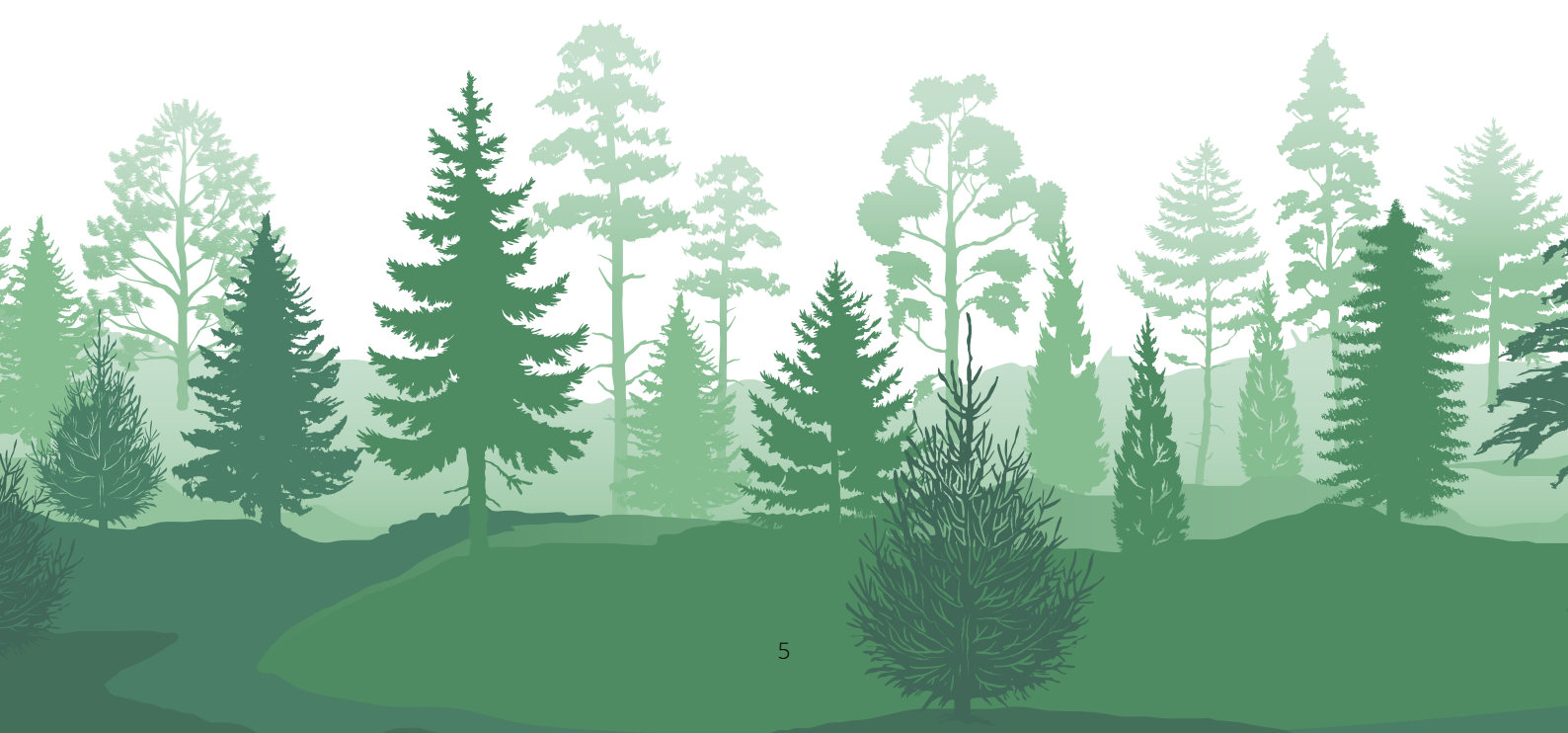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경영시대 산림기술이 기반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주요기능



산림기술자 복리증진
(품위유지·자질향상·권익옹호 등)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자격제도 운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관리**



**산림사업 실적 및
벌점 종합관리**



**산림기술 연구·개발 및
산림기술자 양성(교육)**

주요사업

정부(산림청)위탁업무 「산림기술법」에 따른 업무

- 산림기술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사항의 접수 및 자격증 발급 (법 제9조)
- 산림기술자 등의 근무처·경력·자격 등 신고사항 접수 및 산림기술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10조)
- 산림기술자 명의의 대여,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중목 취업 등 조사사항(법 제11조제5항)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반납 접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말소 (법 제12조제3항)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 접수 및 등록증 교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 접수 (법 제15조제4항)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반납 접수 (법 제18조제3항)
-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 (법 제19조제2항)
-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 접수 및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23조)
벌점의 종합관리 (법 제24조제3항)

일반사업 및 기타사업

-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 기술인회의 홍보와 간행물 등 발행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유대강화
- 산림기술 자료의 축적
- 기술인회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그 밖의 기술인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산림기술자 양성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취득 교육 실시
*산림기술자교육기관(법 제7조제4항) 지정 (‘19.9.5.) (제2019-4호)
- 「임업진흥법」 제9조의2에 따른 산림청 전문교육 실시
- 「산림기술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운영규정 제1장 제4조에 따른 자체전문 실무교육 실시
- 산림교육시설 등 운영 및 관리

산림기술 연구·개발 산림기술연구원

-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산림기술 시범사업 실시
- 산림사업 관련 기술자문·지도 등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법 제4조제2항) 지정 (‘19.4.22.) (제2019-1호)
- 산림정책 및 임업기술에 관한 연구용역
- 개인 및 법인 학술연구용역 및 협업 연구용역
- 각종 산림 관련 계획·조사·시험·분석·평가·진단·기술판단·기술자문·기술지도·기술중재
- 임업기술개발 및 보급
- 산림 관계 법령 및 제도·시책에 관한 개선 건의 등
- 산림기술에 대한 컨설팅 업무
- 산림기술진흥법에 의한 시범사업의 계획·설계·감리·시공

“한국산림기술인회의 발자취”

한국산림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설립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설립목적 「산림기술법」에 의한 산림기술자로 조직하고 산림기술자의 품위 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

법인개요 특수법인

설립일자 2019년 1월 10일 (창립일자: 2018년 12월 20일)

2016
~2017

2016년~2017년

- (2016) 09. 27 :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근거 마련(제13조)
- (2017) 11. 28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2018

2018년

- 08. 14 :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 11. 27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발기인 회의
- 12. 20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총회 개최 ※ 제1대 허중춘 회장 취임

2019

2019년

- 01. 10 : 법인설립 허가 (산림청장)
- 02. 08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응용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 04. 09 : 산림기술연구원 개원
- 04. 22 : 산림기술개발 전문 기관 지정
- 07. 24 :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산림기술인회 (경상북도 - 포항시)
- 09. 05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종합교육) 지정
- 12. 31 : 청사 이전 (둔산동 청사프라자 → 대신빌딩)

2020

2020년

- 02.28 : 제2회 정기총회 개최 (서면개회)
- 05.22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행정안전부)
- 08.14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
- 09.10 : 제3회 임시총회 개최 (서면개회) ※ 제2대 정규원 회장 취임

2021

2021년

- 02. 24 : 제4회 정기총회 개최 (비대면 화상 / 유튜브 생중계)
- 10. 16 : 산림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산림기술인회 - 송곡대학교
- 11. 28 ~ 29 :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개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 12. 01 : 청사 이전 (둔산동 대신빌딩 → 사학연금회관)

2022

2022년

- 01. 25 : 제5회 임시총회 개최 (서면개회) ※ 제3대 정병천 회장 취임
- 02. 25 : 제6회 정기총회 개최 (서면개회)
- 05. 16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 지정 (산림청)
- 11. 28 ~ 29 : 제2회 산림기술인의 날 개최 (담양종합체육관)
- 12. 21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 「산안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2023

2023년

- 02. 27 : 제7회 정기총회 개최(대전KW컨벤션센터)
- 03. 08 :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임업소득교육분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 04. 11 : 산림기술자 임업 기술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산림기술인회 - 숲돌매
- 05. 23 : 제8회 임시총회 개최 (서면개회, 이사 및 감사선임)
- 11. 28 : 제3회 산림기술인의 날 개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사회적 갈등이 되는 산림 문제와 대응책

글_ 한국산림기술인회 자문단장 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수 마상규

신문과 방송에서 회자하고 있는 산림사업에 대한 갈등 과제로는 모두베기 벌목, 임도 시설, 산불 피해지 복원 조림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산주와 산림사업체들과의 갈등에는 소득성, 일자리 부족 및 국산재 공급량의 부족 등이 있다. 전자가 환경 문제에 대한 갈등이라면 후자는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갈등에 속한다.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는 타당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문제 제기자의 편협된 인식이 산림경영관리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산림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산림기술자와 산주들은 사회적 갈등이 되는 산림 문제들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산림관련 시민단체와 정책 관리자들은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과 신뢰의 장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두베기 벌목 사업의 갈등에 대하여

모두베기는 임업 경영상 수확 생산의 방법으로 산업적으로 타당한 방법의 하나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베기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산사태에 의한 재난 발생과 생활 경관의 훼손이 될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산림경영에 대한 국가 사회의 협력과 지원에서 소원해질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해 나갈 위험성이 있는 점이다. 산림은 주어진 조건과 사회적 수요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게 된다.

생태환경 보호 가치, 문화경관 서비스 가치 및 물질 생산 가치 등이 있으므로 이들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벌목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모두베기 방식이 생태적 보호와 문화경관 서비스 가치에 피해가 적을 경우에는 모두베기 사업장의 면적 규모는 경제성 원칙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베기 방법과 면적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벌채목의 생산 기술과 방법에 있다.

모두베기가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 내에 주행하는 굴삭기 집재 작업과 계곡을 따라 시설되는 운재로 이용 방법 및 고밀도 운재로 시설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점이다. 최근에는 탄소흡수 저장력을 높이기 위해 벌기령을 단축하는 정책 발상도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잘못 인식된 지식과 정보가 산림경영 관리를 혼란시키고 있다. 벌기령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목적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고, 탄소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탄소흡수 저장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토지 생산 등급별로 재적 수확 최대 시점을 찾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두베기 방법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으나 환경과 경관 보호 관리 면에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모두베기 경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벌 시 이단림 또는 주벌 시 다층림으로 유도하는 갱신 조림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벌목 형태는 단목형, 군상형, 대상형이 있고 벌채지 면적 크기가 0.5~3ha가 되게 하는 갱신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산림경영에서 다층림 조성을 향속림 경영이라 한다.

향속림 경영 방식이 모두베기식 영급림 경영 방식에 비해 임도와 작업 도망의 밀도가 높아야 하고 벌채 생산비도 높게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국가 사회에서 마련해 줘야 모두베기에 따른 갈등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현재와 같이 도로망이 발달해 있지 않고 기계화 기술의 발전을 시키지 않는 한 모두베기에 따른 사회적 갈등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모두베기와 조림지가 산사태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두베기 조림지에서 산사태가 난 대상지 사례에서 토목학 교수가 그 원인을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 벌목과 어린 나무뿌리가 토양을 결박하지 못해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공개방송을 한 것을 본 적 있었다. 산사태는 집수가 되는 지형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벌목과 어린 나무가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오보를 한다면, 임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일임을 알려줘야 한다.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지형과 토양조건 상, 집수지역인 경우와 굴삭기에 의한 표토의 교란 및 집수가 될 수 있는 계곡 부위에 운재로 시설과 토양을 퇴적시키는대서 나타나게 된다. 모두베기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벌채목의 생산 운반 기술 시스템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탄소흡수저장과 벌기령 설정

반면에 산지 경사가 70% 이상으로 급하고 모암의 특성상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모두베기 대신 다층 형태의 벌채, 수확 방식을 채택하여야 산사태에 따른 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혼효림 또는 활엽수림으로 조성된 지역에서는 움푹 발생이 가능하므로 모두베기 지역의 토양 결속력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나무 단순림 지역이고 풍화토 지역인 경우 벌채 후 땅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산정부 집수지역인 계곡 발생 부위에는 혼효림 유지와 산사태 위험지로 선정해 토양 보전 비오톱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는 생태계를 교란해 미래 세대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화석연료를 통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양을 억제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생산 이용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환경 보호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는 곳으로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자원이다.

나무의 구성을 보면 잎과 가지의 물질량은 약 20%, 줄기가 약 60%, 뿌리가 약 20%로 구성돼 있어 나무를 벌채해 생산 이용하는 것은 총 물질 생산량의 60% 정도이고 나머지 40%는 땅에 남아있는 셈이다. 나무를 베어 이용한다는 것은 물질 생산량이 최

대시점 또는 목재의 시장 가치가 최대 시점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고, 생태적으로는 가능한 노령림이고 자연적인 것이 환경 보호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산림을 경영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와 환경보호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가 나무 베는 시기로 적합하게 된다. 나무 베는 시기를 벌기령이라고 한다. 근래 산림의 탄소흡수 저장력을 높이기 위해 벌기령을 단축하고 모두베기를 통해 재조림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벌기령은 생산자의 경영 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산림 관리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해줄 수도 있다. 문제는 탄소흡수 저장량이 벌기령을 낮출수록 높다는 논리의 비약이 문제가 된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나이가 어릴수록 연간 성장량이 높다. 나무도 어릴 때 생장이 빠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무와 숲은 생리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생장이 이뤄지게 되지만 총평균성장량은 어느 시점부터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물질 성장량만을 고려할 경우, 총평균성장량이 최대인 시점이 숲에서 탄소흡수 저장량도 최대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다음은 독일 산림 수확표에 나타난 지위 1급지에서의 총평균성장량(m³/ha)의 변동 사례이다.

표에서 참나무는 120년일 때 최대 시점이 된다. 포플러 나무는 30년일 때, 가문비나무는 80년일 때, 소나무는 60년일 때 최대 시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성장량이 떨어지고 있으나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경영을 할 때, 경영 수종과 벌기 시점의 선택은 물질생산량이 최고 시점이거나 경영 목표 직경에 도달할 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경영계획 편성을 할 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한국의 주요 수종별로 지위 등급에 따른 벌기령 수확표를 참고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임령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0	140
참나무	1.6	2.9	4.4	5.2	5.8	6.2	6.4	6.6	6.7	6.8	6.7
포플러	15.3	16.2	15.0	13.2							
가문비	2.0	6.4	9.1	10.6	11.5	11.9	12.2	12.2	11.9	11.9	
소나무		5.3	6.9	7.6	8.5	8.1	8.0	7.9	7.8	7.4	7.0

<표1> 독일 산림 수확표에 나타난 지위 1급지에서의 총평균성장량(m³/ha)의 변동 사례

수 종	경영 목표 직경 (cm)	지위등급별 추정벌기령(년)		
		지위 상	지위 중	지위 하
소나무	30	55	65	90
	40	75	85	120
낙엽송	30	55	65	75
	40	70	85	100

<표2> 한국 주요 수종별 지위 등급에 따른 벌기령 수확표 참고 추정

예컨대, 생산 목표 직경을 30cm로 할 경우 벌기령은 60년 이상, 40cm일 경우, 80년 이후가 돼야 함을 보인다. 직경생장은 간벌 강도에 의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벌기령은 경영계획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한 것이지 절대적인 벌목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임도가 산사태와 산불확산 통로라는 주장에 대해

산림은 다양한 가치가 있고 산림의 일생은 대개 100년 간격으로 순환하면서 지역사회 수요를 지속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대상이다. 산림이 순환 경영을 하게 되면 100ha당 1인 일자리가 생기며 원료는 500m³을 생산·공급하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도로이고 산림 경영의 기반 시설이다. 산림 경영에서는 ha 당 30~50m 임도가 있어야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산림을 생태적 자원 또는 경관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환경 또는 조경 관련 학자들이 임도의 불필요론을 제기해 국민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대론자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산림기술자들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 임도 주위에서 산사태가 나거나 산불 피해가 나타날 때 그 원인을 가까이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 속단하는 비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다.

때에 따라 임도 시설을 잘못할 경우와 산정 방향으로 운재로 또는 작업로가 시설돼 있을 때 산사태의 원인 제공 또는 산불 가속화의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다.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산불 확산의 통로가 아니라, 임도 시설의 기술적 잘못 또는 임도의 배치를 잘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기술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에서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도 시설지의 산사태는 지형과 토양 조건, 성토할 때 토사 처리와 집수량에 의해 영향을 받

므로, 기술적 지침을 따를 때 예방할 수 있는 대상이다.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절토면에 소나무림이 발생해 산불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성절토면 소나무림을 숲가꾸기를 할 때 정리를 하는 관리 방식이 도입이 되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임도가 산사태 원인이고 산불 확산의 통로라는 주장은 임도 시설과 임도 변 숲의 유지 관리의 기술적인 착오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일반적인 현상으로 유도되는 일이 없도록 선동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도는 물이 적이다. 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확보가 돼야 한다.



소나무가 산불의 주범으로 물리는 것에 대해

소나무류에는 내륙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해안지역에 자라는 곰솔, 리기다와 잣나무, 등이 있다. 이 중 소나무(적송, 육송)는 한국의 산악을 지켜온 수종으로 산지가 척박해지고, 건조하더라도 굳건하게 산지를 지켜온 수종이다. 생태학적으로는 선후수종이라고 하며, 산림이 척박해지면 바위틈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내려와서 숲을 만들고 세대가 지나면 그 자리를 활엽수에 넘겨주고 건조 지대로 물러나게 된다.

한국은 낙엽활엽수림 지대이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소나무림으로 퇴화하는 것이 다시 활엽수림으로 천이 되어가는 중이다. 문제는 산불피해가 커지면서 산불 주범으로 소나무가 물리고 있으며 피해를 복구할 때도 소나무 조림은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다. 소나무는 천이 과정상 우리 산야를 지켜줘야 할 수종이며 산림탄소경영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볍게 볼 수종이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 대면적 단순림으로 배치하면 재해가 발생할 때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불 대형화 위험 지역인 백두대간 동부천에서는 소나무와 참나무림을 면적 단위의 혼효림으로 배치하거나, 경사면에 따라 대상 형태로 배치되게 함으로써 위험도가 낮은 소나무림 경영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경제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불에 의한 민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 임연부는 활엽수 경관림으로 개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소나무 중에서도 강원소나무(금강송)는 유전 형질이 우수하고 형질과 재적 성장이 양호해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수종임을 수확표에서도 보인다. 다음은 지위 1급지에서 50년일 때 총평균생장량의 비교이다.

한 국		독 일	
강원소나무	14.1m ³ /ha	소나무	7.6m ³ /ha
중부소나무	6.4m ³ /ha	가문비나무	10.6m ³ /ha
상수리나무	5.9m ³ /ha	참나무	5.2m ³ /ha
신갈나무	4.8m ³ /ha	자작 나무	3.3m ³ /ha

〈표3〉 지위 1급지에서 50년일 때 총평균생장량의 비교





한국산림기술인회 인터뷰 코너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산림생태복원 핵심 역할은 숲을 유지하는 것"

인터뷰 진행_한국산림기술인회 총괄사업본부 홍보팀
 대담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교육원장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에 바탕을 둔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화재는 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합니다. 기온, 강수량, 습도 등과 같은 요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면서 산림 지역 화재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태계와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림 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생태 복원 및 기술의 필요성과 관련해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원장이자 해외조림 및 산림생태에 대한 연구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상원 교육원장을 만나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최근 교육원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이전에 산림과학원에 있으면서 숲가꾸기 등 조림분야 관련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의 숲가꾸기 체계 수립에 있어 이바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작성 및 숲가꾸기 방법 등 매뉴얼 작성에 참여해 숲가꾸기 기술 개발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생명의 숲과 동북아산림포럼 등에서 NGO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산림포럼 같은 경우에는 몽골 조림 사업과 관련해 현재 조림지의 관리 및 숲가꾸기 등의 기술을 현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산림과학원에서 있을 때 연구 결과를 현장에 보급하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실무자들에게 그동안 연구한 내용과 현장에서 많이 봐온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원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숲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수확할 때까지 짧게는 30 ~ 40년 길게는 100년 이상도 걸립니다. 교육원 운영도 이와 마찬가지로 숲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철학으로 운영해 나가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Q 산림생태복원의 핵심 역할은?

산림생태복원의 핵심 역할은 숲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숲이 훼손된 걸 다시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산림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잡혀야 합니다. 그다음 산림의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산림 복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숲을 유지하고 탄소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탄소를 저장하려면 장기간 숲을 키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복원을 한다면 보다 나은 산림 복구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조림사업을 하고 방치를 하면 숲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산림 사업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구온난화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으로 기후변화가 극심한 가운데 숲이 형성된다면 사막화나 토양 증발산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후변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가 커짐에 따라 탄소가 고정된다면 이산화 탄소 방출량이 적어지는 등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무가 크게 되면 목재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에너지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Q 보다 효과적인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먼저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산불이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와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산사태를 막고 흩이 흘러가는 걸 막는 보 등 가로막기와 같은 소규모 작업들이 지형에 맞춰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산림생태복원 기술은 현재 물리적으로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시설이 들어갈 경우 토목 공사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환경이 어떻게냐에 따라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은가라는 기본적인 기초 조사가 선행돼 조림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의 힘을 이용해 인위적인 자연 훼손과 지형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의 숲을 복원하는 걸 지향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형이 변경될 수 있는 복원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힘을 이용한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림 부분에서 그 땅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키우자는 개념이 산림생태복원의 기본이 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Q 산림녹화사업이 대형 산불을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산림녹화 사업은 지난 1970년 우리나라 산림이 황폐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돼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 진행한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를 줄이는 사업이다 보니 좀 급하게 진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여러 가지 수종을 다양하게 하지 않고 단순화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림녹화 후 몇십년이 지나면서 나무가 크고 나무가 많아지니 산불이 나면 대형화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녹화사업이 산불을 키운다는 개념보다는 숲을 관리해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키우고 또 산불이 나지 않게 숲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숲 자체로서 산불이 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며, 숲을 관리해 우리가 원하는 자연환



경을 만들고 또 거기에 맞춰 산불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도시에 소방서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불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면 당연히 불이 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실화가 아닌 자연 발화가 돼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자연 발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은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산불을 대비한 산림 관리와 더불어 실화를 막는 시스템 및 인프라 시설을 병행해 구축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지금처럼 산에 나무가 커지는 과정에서는 산불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산불과 관련해 최근 한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산에는 소나무가 많아 산불이 더 잘 확산된다는 내용으로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소나무가 송진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이 붙기 쉽지만 소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에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이러한 지역에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활엽수와 같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소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의 소나무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며, 인위적으로 심은 소나무는 적습니다. 약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나무를 속아베기를 하고, 민가나 도로변에 활엽수를 많이 심어 산불이 안 번지게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장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소나무 천연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산불을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산림정책은.

우리나라는 침엽수 인공 조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활엽수림 조림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엽수 및 침엽수 비율을 제시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조림될 수 있지만, 현재 아직까지 뚜렷한 틀과 기준이 없이 나무가 조림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쪽에 비중을 많이 갖게 됩니다. 침엽수는 추운 곳에서 잘 자라고 활엽수는 따뜻한 곳에서 많이 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활엽수들을 선발해 더 확충하고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라도 활엽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림경영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산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산주들은 결국 산이 자산이기 때문에 경영은 필수입니다. 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기후변화와 엮는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산림기술자분들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숲을 관리하는 걸 염두에 두고 산림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숲가꾸기를 할 때 어떤 숲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최종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계획에 맞는 산림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지 보다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림작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숲가꾸기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겨울철 등산 안전하게 즐기세요!

겨울철 산행 안전수칙은?

추운 겨울에도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곧 새해를 맞아 해맞이를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겨울철은 그 어느 계절보다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행 전 필수 준비물을 챙기고 안전수칙에 대해 미리 숙지한다면 더 즐겁고 안전한 등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안전한 등산을 위해 겨울철 산행 사고 발생 시 대처법과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산행 사고유형 및 대처법

- 조 난** : 폭우, 바람 등 자연적 위험과 방심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
- 동 상** : 물에 젖거나, 크기가 작은 장갑 및 등산화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발생
- 저체온증** : 옷을 얇게 입거나 찬물에 빠졌을 때, 또는 차가운 겨울 날씨에 장시간 머무른 경우
- 등반사고** : 선등자의 빙벽 커팅 조각 및 장비가 떨어지거나, 등반 중 실수로 추락하는 경우



부상 시 무리하게 산행을 실시하지 않고 사고 장소에 멈춰 체온 유지에 주력

등산로 산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지판 번호를 숙지해 신속하게 119로 구조 요청

스마트폰 GPS 기능을 사전에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고하면 신속하게 구조 지점 파악 가능

겨울철 산행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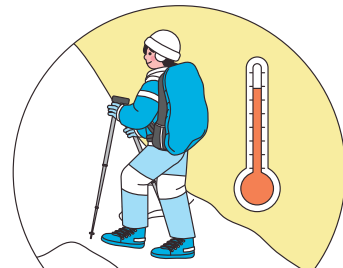
되도록 일찍 출발, 일찍 하산



산행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코스와 산행 시간 예측



복장 및 장비 탄탄하게 준비



적당한 속도 유지로 법과 체력 조절

산림관련 법령정보

최근 일부개정된 산림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정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www.tkfea.or.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_한국산림기술인회 홍보팀

출처_법제처



접속 QR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 시
법령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12. 19. 일부개정 및 시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94호, 2023. 12. 19., 일부개정]

앞으로는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제품을 제외한 목재제품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목재제품 생산자들의 탄소저장량 표시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과 관련해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wood pellet), 목재브리켓(wood briquet), 성형숯 및 숯 등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제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농가주택 목조원(木造元)”을 “목조주택 건축 지원·장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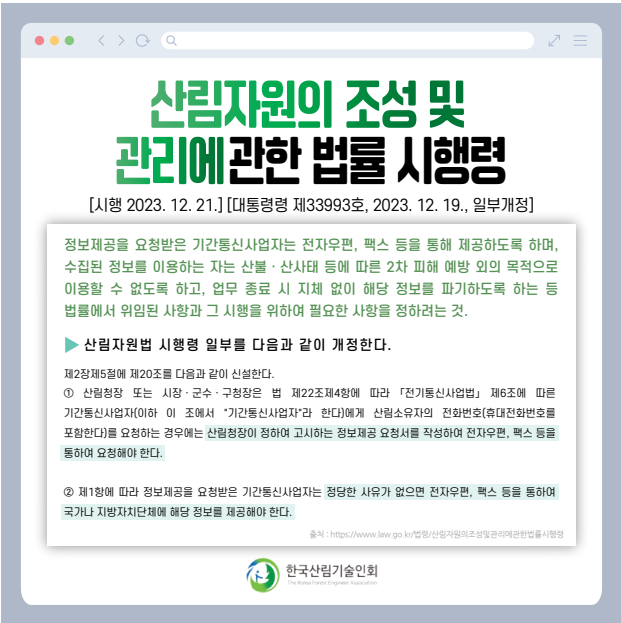
3의2. 목재를 이용한 실내외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산림기술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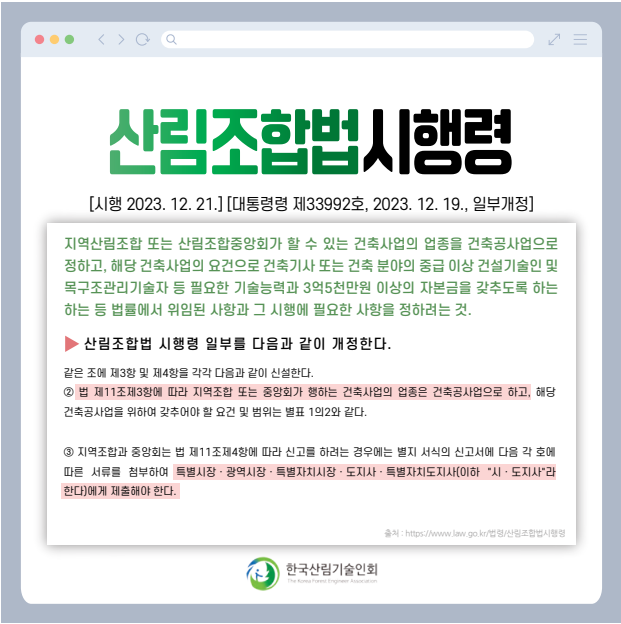
종전에는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목재제품을 합판, 목질바닥재 등 15가지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제품을 제외한 목재제품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목재제품 생산자들의 탄소저장량 표시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12. 19. 일부개정, 23. 12. 21. 시행)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산불·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시행령」(23. 12. 19. 일부개정, 23. 12. 21. 시행)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는 건축사업의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정하고, 해당 건축사업의 요건으로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및 목구조관리기술자 등 필요한 기술능력과 3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선전벽보 부착 또는 선거공보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산림조합 임원 선거 후보자는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를 각각의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인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산림기술자 위법행위

신고센터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및 경력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산림기술자 위법행위를 발견하신 회원은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유형 및 방법

신고유형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및 경력 거짓신고 등 위법행위

신고방법



기술인회 홈페이지 접속
(tkfea.or.kr)



홈페이지 로그인
(본인인증 필요)



신고내용 등록
(회원마당-신고센터)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칭송의 해

산림행정 순화용어 중 '용'이 들어간 것은?

참여기간 2023.12.29(금) ~ 2024.1.26.(금)

보기

1. 허 ○ 오차 2. 매취사 ○ 3. 강도간 ○

위 보기 중 '용'이 들어간 산림행정 순화용어를 맞춰주세요!
위 힌트를 참고하시고,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대상 2024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당첨자 발표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참여 방법

- 1 한국산림기술인회 공식 카카오톡 친구추가
- 2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게시물 확인
- 3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정답, 이름, 생년월일 6자리) 작성
(예 : 정답, 홍길동, 800516)



산림 헤드라인 뉴스

FOREST HEADLINE NEWS

01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출처 : 뉴시스

02 경북,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800억원 투입 출처 : 경향신문

03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 산림사업,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 출처 : 뉴스1

04 산림청, 연말연시 산림재난 대비 24시간 비상근무 출처 : 연합뉴스

05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 처벌, 산림사업 시행제도 손본다 출처 : 쿠키뉴스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 제9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을 축하드리며, 경품은 당첨자 분께 개별 발송 예정입니다.

당첨자 명단

축하합니다!

원*연 570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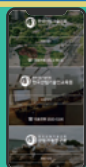
서*선 620416

유*오 590929

이*호 680117

최*빈 640809

경품 :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5명)



기본

오프라인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제1기 기본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접수 바로가기 QR

산림관련법률, 기술자의 윤리, 산림작업 안전관리, 산림정의 이해 등
산림기술자 소양 분야의 교육 · 훈련

교육과정 2024년 제1기 기본교육과정

교육방법 오프라인(대면 교육)

교육기간 2024. 1. 22.(월) ~ 1. 26.(금)

오프라인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6층)

모집인원 80명

교육비 248,500원(중식비 미포함)

접수방법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www.tkfeaedu.com)

문의사항 1533-5160(1번)

교 과 목 ▲기술자의 윤리 ▲산림현장 안전관리 ▲산림정책의이해 ▲산림관련 법률
▲근로기준법과 산재처리 요령 ▲소득세 신고 ▲산림기술법 이해 등

甲辰年

청룡의 기운으로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과
계획했던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임직원 일동



GANGWON 2024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angwon2024.com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24.01.19(금) ~ 2024.02.01(목)

- ❖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 ❖ 80여개국에서 1,900명의 선수들이 참가, 역대 가장 큰 규모!
- ❖ 2018 평창의 유산을 이어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
- ❖ 수호랑, 반다비가 만든 눈 뭉치에서 탄생한 마스코트 뭉초
- ❖ 피겨 신지아, 김현경, 스노보드 최가운, 이채운 등 차세대 K스포츠 스타 탄생 기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보고 싶다면?

“개회식을 빛내줄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개회식

2024.01.19. 20:00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평창돔

- ❖ 강릉 | 등급별로 10만원, 8만원, 3만원
- ❖ 평창 | 무료 (강릉 이원 진행)
- * 사전 입장권 등록은 필수

일반 경기

2024.01.19~02.01.

평창·횡성·정선·강릉 내
올림픽 경기장

- ❖ 전 경기 무료 관람!
- * 인기 경기는 매진 예상되니
예매 필수!

입장권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을?! 도시별 경기와 즐길거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네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슬라이딩 종목은 평창에서, 설상 경기는 평창과 정선, 횡성에서 나뉘어 열립니다.
스포츠와 문화를 전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인만큼 체험과 배움 공간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ICE 강릉

경기종목: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즐길거리: 강릉 페스티벌 주목해야 할 콘텐츠! 야외에서 즐기는 강원2024 아이스링크!
또 하나의 즐거움! 아간 특별 프로그램 DJ스케이트 나잇! 매일 밤, 국내 유명 DJ들과 함께하는 DJ파티가 아이스링크장에서 펼쳐집니다.

SNOW 평창

경기종목: 봅슬레이, 루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킨래튼, 노르딕복합

즐길거리: 평창 페스티벌 주목해야 할 콘텐츠! 강원2024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평창 페스티벌 주목해야 할 콘텐츠! 스키점프대에서 즐기는 색다른 스노우 튜빙!

WILD 횡성

경기종목: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슬로프스타일, 빅에어, 크로스),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슬로프스타일, 빅에어, 크로스)

즐길거리: 횡성 페스티벌 주목해야 할 콘텐츠! 하프파이프 앞에서 즐기는 스피드 챌린지

SPEED 정선

경기종목: 알파인 스키, 모굴 (프리스타일스키)

즐길거리: 정선 페스티벌 주목해야 할 콘텐츠! 뭉초와 함께 인생사진을 찾아라 뭉초 포토존!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산림 및 임업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 대표자의 **남다른 경영철학과 기술 및 사업을 소개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업체 운영에 있어 **경영방침, 목표, 핵심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정회원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회원은 **업체명과 간단한 소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내부 검토 후 선정해 다음 호 뉴스레터에 담을 계획입니다. **업체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shekdms@tkfea.or.kr)

결과발표 선정 업체는 개별 연락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가 있을 시 042-489-85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변경신고·휴폐업신고 공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소통광장 -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tkfea.or.kr

회원동정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원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언제나 등록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tkfea.or.kr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권익보호, 산림기술진흥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자 합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알고 싶은 소식을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언제나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담당자] 노다는 사원 (E-mail) shekdms@tkfea.or.kr (Tel) 042-489-8551

작은 소식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band.us/band/81351345>



<https://blog.naver.com/tkfea1234>



https://pf.kakao.com/_xIVJK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발행일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www.tkfea.or.kr